

법회 안내

설상선원(02)499-4442
 기도불공 및 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경전공부 매주 일 오전11시
 기초교과 강좌
 3월 12일 오전11시, 오후8시부터
 무진법장사(02)932-2333
 초하루법회 1~3일(음) 오전10시30분
 인등기도 15일(음) 오전10시30분
 자장제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제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일요합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지역법회 매주 목, 금 오후2시
 거사, 법륜회 매주 일 오전11시
 첫째주 목 오후7시
 교리반 매주 화, 수요일 오전10시
 경전반 매주 목, 금요일 오전10시
 노래부르기 매주 월 오후2시
 꽃꽂이 매주 목 오후2시
 사찰순례기도 3월 13일 오전6시
 마곡사·성곡사·각원사
 민덕사(02)715-3600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신도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30분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5시
 덕암사(02)451-4597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자장제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제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강남포교원(062)539-2631
 수계교과 3월 10일부터 14일
 오전10시, 오후7시30분
 출가제일 3월 16일 오전11시 살합전
 수계식 3월 18일 오후4시30분
 정진기도 및 사경법회
 3월 17일부터 22일 매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
 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민족서도자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 거리캠페인 512,230원
 △창원점토회 1,841,000원 △대구
 를 사랑하는 모임 190,000원 △반
 한공기 나누기 모금 1,037,000원
 △도문스님(대성사) 1,000,000원
 △갑학용 50,000원 △이현숙
 3,000,000원 △노귀남 150,000원
 △이혜은 100,000원 △이혜옥
 100,000원 △영호군 100,000원 △
 최경숙 50,000원 △김승숙 50,000
 원 △이병희 30,000원
 (4월 현재 총 105,640,195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79-960
 예금주: 최석우(우리민족 불교본부)

“참다운 인성가꾸 미래의 주역되 길”

동국대 송석구 총장

이제 여러분은 대학이라고 하는 새 도시의 정취와 낭만 속에 창조적 미래를 기약해 나아가야 할 주인공이 됐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금년으로 개교 91주년을 맞는 전통의 민족대학입니다. 따라서 신입생 여러분은 동국의 전통과 명예를 잇는 미래의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또 사회와 인류를 위해 탁월한 자아성취를 지향하는 냉철한 이성



과 젊은이 다운 뜨거운 열정의 조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여러분의 사상을 근본으로 공부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참다운 인성을 가꾸고 도덕적 인격완성을 건학 정신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수단으로서

지식의 수용도 중요하지만 우주에 내재해 있는 무한한 참다운 이치를 터득하는 지혜의 눈으로서 학문의 세계를 개척하는 정신도 소중할 것으로 압니다. 바야흐로 우리 동국은 21세기를 향하여 새롭게 비상하는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동국의 새역사는 여러분을 선택했으며 여러분 또한 동국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참사람 만드는 열민교육 도량’ 동국은 빛나는 눈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새내기 여러분의 능률한 기상을 기대합니다.

“정규대 첫 입학생 21세기 선지식 기대”

중앙승가대 방지하 총장

여러분이 오늘 입학하시는 이 순간은 우리 종단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종단사에 있어 최초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규대학에 입학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4년 후면 21세기 한국불교를 책임질 선지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대학은 종립학교로서 불교교육의 메카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시하여 종단의 관계자들과 본인 그리고 학교 교직원 스님들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승가인으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께 학교의 책임자로서 담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승가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또 학인이기 이전에 수행자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교수님과 교직원과 선배들을 잘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대승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계행을 지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자로 흐트러짐이 없이 화합에만 정진할 때 세계불교의 희망은 바로 우리 승가대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민사진전 기금 전달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지난 4일 국재예스티 한국지부장 허창수신부의 예방을 받고 세계민민사진전 기금으로 5백만 원을 전달했다.

미주 북한동포 돕기 지원

법륜 우리 민족서도자기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장은은 13~14일까지 미주지역에서 열리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지원키 위해 미국 샌디에고로 6개 도시를 방문한다.

미하연포교원 개인 법회

일지 부령 미하연 포교원장은 지난 4일 조계종 총회의 장 설경 스님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인협회장 뽑혀

김홍우 동국대 교수(연극영화학)는 한국문화 예술인협회 제7대회장으로 선출됐다. 문화 예술인협회 상임부회장은 안호근씨 부회장은 박찬갑·문미봉씨가 각각 선출됐다.

동대 민해석교수 맡아

시인 신경림씨(62·사 진위)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경래씨(54)가 동국대 국문과 '민해석교수'로 강단에 선다. 동국대 국문과 출신인 신경림 조정래교수는 이번 학기부터 강의를 맡는다.

동국대 예술대학원 입학

김홍국 불자가수회 회장은 지난 3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 입학했다.

대불청 대구지구장 당선

김장근 대구불교신학회 회장은 지난 2월 28일 보현사법당에서 열린 대불청 대구지구장 선거에서 제10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데 포교원 개인법회를 열고 원장에 취임했다.

동방대학원 기금 마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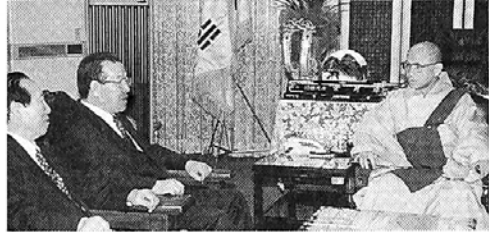
김동현 동방연서회장은 오는 98년 3월 개교하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건립 기금조성을 위한 전시회를 가졌다. 지난 5~11일 공평아트센터에서 마련된 전시회에는 2백70여점의 서법작품이 출품됐다.

영산국제산업대 초대총장

정천구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영산국제산업대학교 초대 총장에 취임했다. (0523)3086-9114

‘한국인의 정신구조’ 특강

백상철 연세대의대교수는 오는 12일 오후2시 불교방송 공개출에서 ‘한국인의 정신구조’를 주제로 강연한다.



월주스님 김종필 총재와 시국환담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지난 7일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을 예방하고 비상사국에 관한 불교계의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2백여명의 불자·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



만해스님 어록비 망우묘원에 제막

지난 2월 28일 오후 2시 중랑구 망우동 망우묘지공원에 새긴 한영순스님의 행적과 어록을 새긴 연보기록비가 제막됐다. 이문재중앙구청장 유족 한영숙씨 전보삼(신구전문대. 대한해사연구소 소장) 김익수(한국체대)교수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된 연보기록비는 중랑구청이 높이 1.5m 폭1.2m의 크기로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했다.



6대종교 3·1절 공동기념식

불교·원불교·기독교 등 6대종교는 지난 1일 종로 탑골공원 광각정 앞에서 3·1절 78주년 공동기념식을 봉행했다. 2백여명의 불자·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월주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종교지도자들이 합심해 일으켰던 기미년 만세운동에 대한 회상은 앞으로 종교간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대의를 위한 결의”라고 말했다.



동국대 ‘감사와 축하의 밤’ 열어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2월 28일 월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학교발전기금 3백22억원 조성을 기념하는 ‘감사와 축하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학인이사장



육사 화랑호국사 졸업 법회

육사 화랑호국사(주지법사 이희용)는 지난 5일 교내 대법당에서 동관스님(도선사 주지) 전상배장군(국방부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3기 졸업생 환송법회를 봉행했다. 박광서 우리는 선우 이사장은 축하를 통해 “21세기는 불교의 시대”라며 “불자로서 예의바르고 사리분별있는 군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역사의 아픔 재조명 됐으면...”

‘정신대 전사관’ 건립기증 광정 환희장

통한의 과거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여간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지난 1일 기공식을 가진 나눔의집(원장 해진) 정신대전사관을 건립, 기증하는 광정 환희장(47)의 말이다. 평소 인간의 중심이 되는 사회,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는 소신을 피력해온 광희장은



“3·1절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대중가족의 작은 정성을 정신대전사관 건립사업에 보탬 수 있게 바랍니다. 오랜 세월동안 역사속에 묻힌채, 사라졌던 정신대할머니의



‘진관스님 석방촉구 후원의 밤’ 행사

진관스님 구속진상규명과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명진스님)는 지난 4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진관스님 석방촉구를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후원의 밤에는 설정(총회의장) 영담(석왕사 주지) 청화(청광사 주지) 오창익신부(천주교 인권위) 김근태 장영달 의원 연기영 동국대 교수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생활속의 불교 113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 것도 쇠신할 수 없다.

“대바심이 없는 공부는 작은 공부이다. 자기의 기쁨과 편안함, 이익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복된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풀 한 포기 버리지 않는 대바심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수행자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혼허를 부부기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남남끼리든 더 말할 것도 없이 제 보기에 마음에 들면 잘한다 이쁘다하고 마음에 안들면 밋다 싫다고 한다. 그때따라 말도 부드러웠다가 거칠었다가 별 격 화를 냈다가 한다. 남이 해주는 말도 듣기 좋게 속삭여주면 좋다고 잘못을 지적 해주면 싫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다 자기를 꺾어 먹는 일이다. 분별심 일체를 주인공에 놓고 항상 자비를 게 대하라.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말 없는 중에도 마음의 통신으로 서로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같이 하고 같이 갈 수가 있다.”

인간끼리의 사랑에서 그에 버금가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주기만 할뿐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며 자식을 닮지 않고 오로지 인내하는 사랑이요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사랑이다. 그야말로 지고지순(至高至純)하다. 그러기에 그 사랑에는 절로 감화가 따르고 평화와 쇠신이 있으며 위안과 평화가 있다. 아낌없이 주는 모정(母情)을 담은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엔 평안과 만족이 있다. 거기엔 미움이나 적의(敵意)가 발을 붙일 수 없다. 억압·공격·학대·부정 따위가 따르지 않는다. 비방이나 기망 질시도 없다. 아니,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봄 벌레 쌓인 눈이 그만 녹아 내리듯이 그렇게 녹아 내린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상대를 지극하게, 사무치도록 사랑하면 그도 내게 그렇게 한다. 꽃이나 미물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마음이 가지 않는데 상대가 내게 응해 줄



리가 없다. 고로 먼저 사랑해야 한다. 누구라도 감싸고 안아주어야 한다. 그러면 자식과 자식이 감응하듯이, 물과 유유가 잘워워 이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하고 서로를 찾는다. 마음의 화답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대체로 물질에 치우치고 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당연시한다. 아낌없이 주는 삶, 누구라도 감싸는 삶을 말라라 치면 그건 성현의 몫이라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늘 불안·불만·공포·고통·긴장 따위가 동전의 앞 뒤처럼 따라다닌다. 거기엔 만족이란 없다. 언제나 스트레스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불평·불만·회한·고뇌가 쫓아다닌다. 하지만 주는 삶에는 평화가 있다. 안녕과 만족이 있다. 경건 말씀으로는 사랑엔 열 할까지 복이 따른다고 한다. 사랑은 그래서 해탈로 이끄는 바라밀 수행의 첫 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만족과 안녕의 길을 버리고 불안과 고통의 길을 택하는 것일까? 세간에선 인간의 이익추구 본능을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는 것은 자식의 이익과 행복을 자신의 이익과 행복으로 동일시(同一視)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부모의 자아의식은 자식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고로 자식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자식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된다. 따라서 내가 '나'라는 울타리를 넓히려면 그것이 넓어지는 만큼 비례하여 거두고 다 풀 상대는 줄어든다. 넓어진 내 울타리 속에서 내가 나와 다투고 긴장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사랑의 마음을 방사(放射)하라. 아낌없이 주는 마음을 내려. 넓힐 수 있는 데까지 넓혀라. 내는 만큼 넓어진다.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 것도 정화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쇠신할 수 없다. 나를 바꿀 수도 없고 상대를 바꿀 수도 없다.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우리에게 준 가르침이다.

협찬 : 김 남 운